

重刊老乞大諺解의 研究

金 完 鎮

I

重刊老乞大諺解의 정확한 刊年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록을 볼 수 없으나 諺解의 대본이 되는 重刊老乞大가 1795년(正祖 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에 곧 이어 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重刊本에 앞서 간행되었던 老乞大新釋(또는 新釋老乞大, 1761)이 2년후인 1763년 같은 진용에 의하여 언해되었던 前例를 참고할 수 있겠거니와, 두 경우 모두 언해까지를 상정한 일관작업이었다 할 수 있겠다. ⁽¹⁾

重刊老乞大諺解만이 아니라 重刊老乞大에도 서문이나 반문 또는 간기 같은 것이 붙어 있지 않으나, 후자의 末尾에 간행에 관여한 官員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正祖의 御命을 받들어 시행된 사업임을 알 수 있게 한다. 校檢官 서두에 나오는 李洙는 崇錄大夫(從一品)의 分外라 할 높은 品階에 있고 연령도 75세의 高령이었던 것을 알 수 있거니와, 司譯院의 原任 時任 長官(正)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사역원의 총력을 다한 사업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²⁾

(1) 重刊老乞大의 藍本이라 할 수 있는 老乞大新釋 말미에는 ‘檢校書寫諸官’이라는 제목 아래 이 책의 간행에 관여한 관원들의 명단이 檢察官, 校正官, 書寫官의 3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명의 書寫官 가운데 첫째와 셋째에 적힌 趙東洙와 鄭德純의 이름 뒤에는 ‘諺解正書入梓’라는 注記가 있어 老乞大新釋이 처음부터 老乞大新釋諺解까지를 전제로 하여 진행된 사업임을 알게 한다. 重刊老乞大 끝에도 이와 비슷한 명단이 실려 있는데(전자에서는 한장 분량인데 후자에서는 두장 분량으로 그 인원수가 많고, 檢察官, 校正官, 書寫官 외에 監印官 한 명[張燾]이 더 첨가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書寫官 가운데 李觀濠의 이름 뒤에 역시 ‘正書入梓’라는 注記가 붙어 있음을 본다. 비록 ‘諺解’라는 말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은 바 직분은 비슷하지 않았는가 추측된다. 1800년까지의 사람인 正祖大王 在世中の 간행일 확률이 높다 할 수 있는 것이 重刊老乞大諺解이다.

(2) 李洙는 司譯中人の 중요한 家門인 金山(지금의 金陵郡 域內) 李氏의 일원이다. 代代로 중요한 漢語 譯官을 배출한 집안이지만, 장수하여 累進하였다고는 하겠으나, 그의 품계는 파격적이다.

필자는 그러나 老乞大의 重刊本 간행을 단순한 중국어 교과서의 개편 작업으로 유리지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첫째로 御定奎章全韻의 간행이 바로 다음해인 1796년에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正祖의 韻書 정비 작업이라는 방대하고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한 대사업에 병행하여 또는 그 부차적 소산으로서 탄생된 것이 重刊老乞大라고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도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음은 본론에 가서 살필 기회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아직 老乞大라는 중국어 교과서를 다시 손질할 주기에 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顯宗朝의 老乞大諺解(1670)에서 老乞大新釋의 출현(1761)까지는 9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30년에 다시 개정 작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그 간격이 좁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正祖가 벌였던 문화 사업, 특히 韻學~譯學의 정비 작업의 一角으로서 重刊老乞大의 출현을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³⁾

또하나 고려에 넣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老乞大는 본래 朴通事라는 짝을 동반하면서 中宗朝에는 崔世珍에 의하여 같이 번역이 되고, 肅宗朝에는 顯宗朝의 老乞大諺解에 이어 朴通事諺解가 나왔으며, 新釋의 시대에 와서는 또 같은 순서 대로, 老乞大新釋~老乞大新釋諺解에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가 따랐던 것인데 重刊의 단계에 와서는 老乞大가 朴通事라는 짝을 잃고 외톨이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원래의 正祖의 의중에는 重刊朴通事와 그 언해 사업까지가 들어 있었지만, 그의 건강의 급격한 악화가 이 당연히 병행되었어야 할 사업을 무산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 현재의 견해이다. 正祖는 1800년 寶壽 50에 세상을 뜨고 말았음을 염두에

(3) 崔世珍은 그의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서 每漢字마다에 正音과 俗音을 병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今俗音을 첨가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나, 그의 翻譯書에서는 이 약속이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렇게 3개의 음을 아울러 적은 보기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俗音을 正音 자리에 올리고 今俗音을 俗音 자리에 놓았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도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것이나, 新釋에서 重刊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래 기약되었던 正音과 俗音의 병기 체계가 확립되어 韻書와 譯學書 사이의 正常的인 연관이 비로소 확보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들 일이다.⁽⁴⁾

전자에 老乞大의 번역과 언해를 비교하여 연구하였을 때에는 순수한 국어 자료로서의 언해문을 연구의 주대상으로 삼았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어 원문 부분에 붙여진 발음 표기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연구의 주안점을 옮기는 것은 重刊老乞大諺解가 가지는 시대적 특성에 말미암는다.

이 책에서의 중국어 주음은 격렬히 진행된, 혹은 진행되고 있었던 중국어 발음을 현실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했던 18세기 말의 조선조 역학자들이 표음 문자로 정성스레 기록한 결과의 반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긴 학문적 유산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발굴되는 결과는 近世의 중국어 음운사의 귀중한 자료로 각광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 할 것이요, 현재의 필자가 시도하는 것은 이 문헌의 가치를 밝혀 중국어학자들의 본격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능력과 안목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의 제한된 과제를 가지고 중국어 음운변화의 양상을 지적하는 것이 현실적인 작업 내용이 될 것이다.

19세기 이래로 언어학자들은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비슷한 변화의 집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요, 미시적으로 짧은 기간 기간을 두고 관찰할 때에는 상당히 다양한 변화 양상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작금의 학자들의 인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의 현장을 重刊老乞大諺解에서 몇가지 과제에 걸쳐 확인할 수가 있다. 놀랄만큼 전위적인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만큼 보수적인 사실의 발견도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은 당시의 실제 발음을 반영하는 俗音 쪽을 중심으로 하고서의 말이고, 正音 쪽에서는 이와는 다른 사정을 읽을 수 있다.

(4) 필자는 重刊 단계에 老乞大의 그것만이 이루어지고 朴通事가 빠지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려 한 일이 있다(拙著 1976). 老乞大가 좀더 대중적인 대화로 된 초급 교재이고 朴通事가 그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수요의 관점에서 후자가 제외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역시 朴通事に 관한 사업도 뒤따랐음직한 것이다. 간행 순서가 老先 朴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되, 후자가 전례 없이 무시되었다고 할 합당한 근거는 없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의 漢字 하나하나에 正音과 俗音을 병기하여 붙이는 전통은 崔世珍이 老乞大와 朴通事를 번역할 때 세운 체재의 답습이다. 현실적으로는 몇백년 이전의 음운체계의 반영이라 할 正音을 무엇 때문에 실용적인 어학 교재에 아울러 붙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문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만, 특이한 역사음운론이라고 해야 할 韻學의 전통이 간여하며 이 기이한 正俗音 併記의 전통이 수백년간을 끈질기게 이어내려 온 것인데, 굳이 변명한다면 실용적인 어학이 上位의 韻學에 정신적으로 매어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

重刊老乞大諺解는 이러한 전통의 棹尾를 장식하는 결실이라 할 수 있겠거니와, 奎章全韻의 체계에 영향된 바가 적지 않음을 목격할 수가 있다.

가령 ‘麼’字에 대하여 그 正音 칸을 ‘뫼’로 하고 바른 쪽 俗音 쪽을 ‘마’로 하고 있는 것이 重刊老乞大諺解에서의 일관된 표기 체계인데, 崔世珍의 경우어나 老乞大諺解의 경우에는 양쪽을 한결같이 ‘마’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崔世珍의 번역에서는 왼쪽 ‘마’에 上聲을 나타내는 2점을 붙이고 있다.). 四聲通解 아래로 ‘麼’字의 正音은 ‘뫼’로 분명히 기록되어 奎章全韻에 이르는 것인데, 漢語 교과서로서의 老乞大나 朴通事の 漢字에 正俗音을 병기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俗音과 今俗音을 병기해 오던 터에 俗音을 배격하는 奎章全韻의 정신이 ‘뫼’를 소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正音에 대한 반성은 주로 모음을 중심으로 행하여졌던 듯하고 初聲이나 終聲의 표기에 있어서는 譯學 특유의 표기 전통을 유지하려 한 듯하다.

가령 ‘時’나 ‘兒’에 대하여 sseuz, zeuz식으로 표기하던 것을 지양하여 모음을 ‘이’로 바꾸기는 하였으며, 종성의 ‘△’까지를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이 그 한 보기라 할 수 있다. 이 ‘△’ 표기의 기원은 崔世珍의 四聲通解(上卷 13)에 ‘으’ ‘이’의 中聲을 가지는 支紙寘 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데 비롯된다.

三韻內齒音諸字初呼口舌不變而以△爲終聲然後可盡其妙如質字呼爲중知지字呼爲깁餘倣此牙音唇音則否.

通解의 凡例에서 樂韻의 韻尾가 效韻의 경우와 같은데도 四聲通攷에서는 그것을 같이 ‘뫼’으로 하지 않고 ‘뫼’으로 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처리를

그대로 따른다 하였던 일이 있는데, 이 순경음 ‘뽕’을 正音에 사용하는 전통을 重刊老乞大諺解에 까지 유지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전통 유지라 할 수 있다. 奎章全韻은 初聲에 대하여는 엄격하면서 終聲에 대하여는 時俗을 좇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重刊老乞大諺解는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에 나왔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崔世珍이 스스로 제언해 놓고 지키지 못했던 원래의 규정에 충실히 돌아가면서도 내려오는 전통은 전통대로 지킨 朝鮮朝 漢語 교과서 언해의 결정판으로서 正祖大王의 문화사업의 한 상징이 되기에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일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重刊朴通事 또는 그 諺解까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만큼 正祖가 壽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점일 것이다.⁽⁵⁾

本論의 배열은 제 2 장은 본격적 논의를 위한 예비 사항들의 설명에 돌리고, 3장과 4장에서 당시의 표기에 반영된 중국어 현실음의 상황을 가술하며 현재의 중국음과의 이동까지를 논의하되, 주로 자음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구개음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한다. 모음의 문제는 현재의 필자에게는 벽찬 과제로 느껴져 되도록 언급하지 않고 뒷날을 기다린다.

II

이 제 2 장은 필자가 이 논문에서 주장 또는 설명하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서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가령 出典을 표시하는 데에 5~6 또는 20-7과 같은 표현을 택하여 통례적인 張數나 面數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그 첫째 보기가 될 것이다.

둘째는 중국어 발음의 표기에 이용된 한글을 로마자로 전사하는 체계를 밝혀 두는 일이다. 이른바 正音이고 俗音이고 간에 그 복잡성 때문에 그것을 본래의 형태대로 실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우 우원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단 로마자로 옮겨 적어 놓고 읽는 사람이 다시 이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자기 머리 속에서 복원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5) 前記 注(3)을 참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순전히 인쇄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자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로마자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한글 자체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로마자에 의한 전사는 한글로의 재전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에 轉字의 원칙에 우직하리만큼 충실할 수 밖에 없다.

셋째는 이들 한글로 된 전사를 실제 중국 한자음과 대비시킴에 있어서 중국음을 어떻게 적는가 하는 문제인데, 일단 1957년에 중국에서 정한 漢語拼音方案에 의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표기 체계는 우리 국어학자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항용되는 음가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진 전자 체계여서 상당한 해설을 붙여 두지 않으면 의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를 가지게 되는 체계이다. 실용적 표기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완전한 음운론적 전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첫째 문제는 重刊老乞大諺解의 구조적 특성에 말미암는다. 上·下 두권으로 분권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은 유표한 하위 구분을 하지 않고 종시 내려 써 간 것이 원래의 老乞大의 체제였다. 末松保料(1944)는 107章 체계가 古來의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것은 中宗朝에 된 崔世珍의 번역을 볼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내린 추측으로 지금의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의견은 아니다. 諺解가 붙지 않은 古本에 꺾음쇠를 길게 한 것 같은 기호가 붙여진 것이 顯宗朝의 언해본의 分章과 일치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것은 이 언해본에 魚尾紋 모양의 分章 표시에 의거하여 후일에 누군가에 의해 추가된 것이지 옛부터 그런 구분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⁶⁾

崔世珍의 번역본에서는 句節을 나누고 각 구절의 본문과 언해 사이에 작은 동그라미 표시(후일의 언해본에서는 이 권표가 본문 漢字 크기에 필적할만큼 확대되어 있으나 최세진의 번역에서는 2행 협주 형식의 번역문 활자 크기로 되어 있다.)를 하고 있을 뿐 그보다 높은 차원의 단락 구분은 시도되어 있지 않다.

현존하는 번역본 上卷에는 句讀點 모양의 ‘●’과 ‘○’을 옳은 어깨 머리에 붙여 그 이상의 단락을 표시해 나갔고, 불규칙하게지만, 分章 표시로

(6) 老乞大諺解 영인본에 붙인 해설.

‘一’(한 일)자 모양의 기호를 삽입한 것이 있으나, 후에 추기된 일종의 私案의 성격의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는 下卷에는 일체 이런 표시의 기입이 없음을 유념할 일이다.

老乞大諺解의 107章으로의 구분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魚尾 모양의 것을 章이 갈리는 곳에 삽입하는 것으로 표시를 삼고 있어 찾아내는 데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重刊老乞大諺解에서의 分章은 현대의 단락(패라그라프) 표시를 방불하게 줄을 바꾸는 체재로 발전되어 있어 찾아 보기에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 발전이 실은 肅宗朝에 나온 朴通事諺解에서의 창안에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것은 老乞大諺解에서의 分章法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들이 곧 깨달았다는 것이 되기도 한다. 한편 重刊老乞大諺解는 언해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 대한 두 단계의 수정의 결실이기도 하여 章의 수효가 107에서 111로 늘어나 있기도 하다.⁽⁷⁾ 지금 전하는 책들에는 상단의 여백에 1에서 111까지 일련번호를 부가한 것들을 보는 일이 드물지 않는데 필자는 이것을 매우 유용한 작업이라고 믿으며, 各章 안에 들어 있는 句節들에도 고유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出典 표시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한 활자본을 낼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그것은 당분간 무망한 일이겠고, 읽는 분들이 확인할 때에는 ‘○’표를 따라 세어 나가는 노고를 끼치게 되는 것이 미안하나, 1976년의 줄저에서 택한 것과 같은 章의 구분 없이 句節에 일련번호를 붙여 거의 검색할 수 없게 만든 횡포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방편이라고 강변하고 싶다. 各章에 포함된 구절의 수효를 모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앞에 표시한 漢字가 章을 나타내고 뒤에 붙인 아라비아 숫자가 그에 포함된 구절의 수효를 나타내는 것이나 실제로 출전 표시에 이용할 때에는 양쪽 다 아라비아 숫자로 ‘10-5, 14-5’ 등과 같이 쓸 것이다.

上卷

一,	22	二,	19	三,	29	四,	27	五,	21
六,	23	七,	20	八,	35	九,	33	十,	30
十一,	17	十二,	27	十三,	35	十四,	28	十五,	21
十六,	31	十七,	32	十八,	31	十九,	34	二十,	22
二十一,	25	二十二,	18	二十三,	23	二十四,	21	二十五,	21

(7) 111章 체제는 老乞大新釋부더의 체재다.

二十六, 28	二十七, 22	二十八, 24	二十九, 22	三十, 16
三十一, 51	三十二, 20	三十三, 27	三十四, 15	三十五, 26
三十六, 13	三十七, 21	三十八, 20	三十九, 29	四十, 31
四十一, 38	四十二, 23	四十三, 31	四十四, 25	四十五, 21
四十六, 24	四十七, 36	四十八, 32	四十九, 22	五十, 28
五十一, 17	五十二, 34	五十三, 15	五十四, 34	

下卷

五十五, 23	五十六, 26	五十七, 48	五十八, 33	五十九, 21
六十, 26	六十一, 56	六十二, 32	六十三, 18	六十四, 26
六十五, 20	六十六, 22	六十七, 33	六十八, 22	六十九, 40
七十, 20	七十一, 36	七十二, 70	七十三, 19	七十四, 42
七十五, 34	七十六, 23	七十七, 40	七十八, 9	七十九, 17
八十, 36	八十一, 51	八十二, 15	八十三, 27	八十四, 20
八十五, 36	八十六, 47	八十七, 31	八十八, 20	八十九, 26
九十, 25	九十一, 24	九十二, 29	九十三, 38	九十四, 22
九十五, 11	九十六, 13	九十七, 13	九十八, 42	九十九, 13
百, 35	百一, 17	百二, 26	百三, 24	百四, 35
百五, 23	百六, 23	百七, 25	百八, 50	百九, 20
百十, 31	百十一, 17			

한글 字母의 轉字는 다음과 같이 한다.

ㄱ : g	ㄴ : n	ㄷ : d	ㄹ : r	ㅁ : m	ㅂ : b	ㅅ : s
ㅇ : o/ng ⁽⁸⁾	ㅈ : j	ㅊ : c	ㅋ : k	ㅌ : t	ㅍ : p	ㅎ : h
ㄲ : gg	ㄸ : dd	ㅃ : bb	ㅆ : ss	ㅈㅈ : jj	ㅊㅊ : hh	
ㅅ : z	ㅍ : f	ㅂ : v	ㅇ : w	ㅇ : q		
ㅏ : a	ㅑ : eo	ㅓ : o	ㅕ : u	ㅛ : eu	ㅜ : i	ㅇ : ʌ ⁽⁹⁾
ㅗ : ya	ㅛ : yeo	ㅜ : yo	ㅠ : yu	ㅟ : oa	ㅞ : ueo	
ㅛ : ai	ㅜ : eoi	ㅞ : oi	ㅟ : ui	ㅞ : eui		

俗音 표시에서의 ‘ㅣ’ + ‘ㄱ’, ‘ㅣ’ + ‘ㄷ’ 또는 ‘ㅡ’ + ‘ㄷ’ 등은 문자 그대로 io, iu, euu 등으로 표기한다. 각 漢字는 단일 음절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나 ‘으’를 두 모음자의 결합으로 하여 eo, eu로 표시하더라도

(8) 어두에서는 표시하지 않고 음절말에서의 자음만을 ‘ng’로 표시.

(9) 로마자가 아닌 유일한 예외. 다만 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ㅇ’가 쓰이지 않아 先行本들의 표기에만 필요하다.

III

우리말로 하면 ‘무엇, 무슨, 어찌’ 등의 뜻으로 쓰이는 중국어 단어에 ‘怎麼’와 ‘甚麼’가 있다. 簡體字로는 ‘麼’가 ‘么’로 나타난다. 이 두 단어의 로마자 표기는 <zěnmě>와 <shénme>가 표준이나, 각각 <zěme>와 <shéme>라는 발음도 존재할 수 있음을 사전에서 읽을 수 있다. (漢語拼音字母에 의한 표기는 < >표 속에 넣어 나타내고, 우리 諺解書들에서의 한글에 의한 注音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그대로 노출시켜 적음으로써 구별하도록 하겠다.)⁽¹⁰⁾

그런데 이 단어들을 우리의 重刊老乞大諺解는 ‘즈마’와 ‘셔마’로 고정시켜 적고 있는 것이 특이한 모습으로 눈에 들어온다. 특이하다는 말로 우리는 몇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즈마’와 ‘셔마’로 고정되고 ‘즈마’나 ‘셔마’라는 형태는 보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당연히 ‘n’(ㄴ)이 기대되는 곳에 ‘m’(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겠으며, 셋째는 첫 음절의 모음이 ‘으’와 ‘어’로 갈려 적히고 있는 일이고, 넷째는 ‘麼’의 발음 <e>에 대한 표기가 ‘어’나 혹은 ‘으’가 아닌 ‘아’로 나와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어 음운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할 것은 ‘怎’字의 끝 자음이 ‘m’으로 적히고 있다는 사실이겠는데, 과장해서 말한다면 音韻史의 ‘妄靈’을 보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도저히 그런 비현실적인 표기가 어떻게 18세기말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강한 不信을 표시할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어도 본래는 비음에 세 종류가 있어 발음에 m, n, ng의 구별을 가졌던 것이지만, 12세기를 전후하여 m과 n 사이의 대립이 중화되어 n으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언제 적 일이라고 18세기말에 와서 ‘m’의 표기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가 하고 반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찌면 상식적인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怎’을 ‘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

(10) ‘甚’字가 ‘무슨’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그 성조가 2聲(양평)일 때의 일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심하다’의 뜻일 때에는 그 성조가 4聲(즉 거성)으로 <shèn>으로 표기된다.

다. 음운사상으로 ‘m’으로 소급되는 모든 말음을 본래의 ‘n’과 함께 모두 ‘ㄴ’으로 적으면서 오직 ‘怎’의 경우에만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즘’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두가지 특별한 정보를 첨가할 수 있는 것을 각별한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로 하고 이러한 사실의 존재 자체를, 있을 것 같지 않은 사실의 존재 자체를 보고하는 데 적지 않은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첫째는 이 ‘즘’의 표기가 重刊老乞大諺解에 와서의 들출 사건이 아니라, 실은 최세진의 번역노걸대에서 시작하여 老乞大諺解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怎麼’와 같이 다음 음절이 ‘m’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사 없이, 또는 그 ‘m’ 아닌 다른 자음으로 시작되는 음절과의 연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예컨대 ‘怎敢…’ (jeum gan…)과 같은 맥락에서도 예외 없이 ‘즘’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重刊老乞大諺解에서의 ‘怎麼=즘마’의 보기 :

1-8,	2-2,	3-8,	3-9,	12-24,	14-17,	18-24,	26-19,
31-8,	31-41,	32-5,	35-14,	37-10,	38-17,	39-8,	40-3,
40-15,	43-4,	43-20,	46-6,	46-7,	46-21,	49-4,	49-12,
50-7,	50-10,	50-13.					
55-3,	57-10,	62-6,	62-12,	66-8,	69-6,	75-22,	77-14,
86-34,	86-43,	100-10,	103-20,	104-23,	106-11.		

‘麼’와 결합되지 않은 ‘怎=즘’의 보기 :

13-31 我怎敢說謊
 19-33 那賊們怎知你有錢沒錢
 27-3 怎不會打水
 33-1 怎能忘你的情
 37-20 怎知道你們是好人歹人
 39-18 我怎敢略你宿
 39-29 我怎敢略你宿
 100-24 怎那般說

甚麼=셔마(正音 셴뵤)의 보기⁽¹¹⁾

2-9, 2-18, 3-1, 4-2, 5-1, 6-16, 9-20, 12-5,
 13-28, 15-6, 16-7, 18-25, 19-22, 19-27, 19-29, 19-31,
 22-11, 22-15, 24-10, 25-5, 27-19, 30-2, 31-24, 31-27,
 31-30, 31-42, 32-17, 33-12, 33-13, 34-7, 39-17, 41-5,
 41-21, 43-7, 45-19, 47-2, 47-18, 48-26, 50-8, 50-14,
 50-26, 54-14.
 56-2, 56-4, 56-19, 58-1, 58-20, 59-19, 63-15, 63-17,
 64-4, 65-20, 66-19, 68-15, 69-3, 72-6, 73-2, 73-6,
 74-3, 75-5, 75-30, 77-6, 77-22, 77-26, 87-3, 88-10,
 88-20, 93-22, 93-28, 100-8, 100-14, 104-21, 104-32, 107-1,
 107-13.

‘甚=신’의 보기(뜻은 ‘무슨’이 아니고 ‘대단히’ 또는 ‘매우’이다.):

64-19 甚是公道(장공변되다,)

최세진에게 있어서는 ‘怎麼’는 ‘즈마’, ‘甚麼’는 ‘슴마’로 그 俗音을 표기하여 ‘怎’과 ‘甚’에 대하여 다같이 末音 ‘m’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重刊本의 경우와 다르게 되어 있거니와, 모음도 똑같은 아래 ‘으’를 썼던 것이다. 그러나 顯宗朝의 老乞大諺解에서는 ‘m’은 양쪽에 다 유지하되 모음은 달리 하여 ‘怎’은 ‘즈’으로 적으면서 ‘甚’은 ‘슴’을 유지하고 있다. ‘으’자를 쓰지 않게 되는 重刊本에 와서 ‘셔마’의 ‘어’가 연유하는 바를 시사하는 것이 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의 로마자 표기에서 ‘怎麼’의 ‘怎’이나 ‘甚麼’의 ‘甚’이 다 같은 모음 ‘e’로 표기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달리 적는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하지 않는가 의아해 할 수도 있으나, ‘e’로 표기하는 소리가 음성상으로는 [e], [ə], [ø]에 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ê는 [ɛ]) 선행 자음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달리 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야겠다.

모음에 대한 또하나의 의문은 ‘麼’에 관한 것이다. ‘麼’의 발음 또는 용법에는 <mó>, <ma>, <má>, <me>, <mō>, <yāo> 등의 여러가지가 있으나, 현대의 어형 <zěnmě>, <shénme> 등을 생각하면 <me>를 반영하는 표기가 기대되는 곳이라 하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마’는 <ma>를 반영한 것 같

(11) 甚麼를 什麼로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의 什의 음은 <shén> 이어서 <shi>로 쓰일 때와 구별되는데, 重刊老乞大諺解에는 후자의 보기가 있을 뿐이다.

이 보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正音 쪽을 ‘뮌’라고 표기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오히려 첫째 번에 보이는 <mo> (의미상으로는 ‘작은, 얼마 안되는’을 뜻하는 실사)에 관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물론 의미상으로도 거기에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뮌’의 존재는 韻學 체계의 압박에 의한 正俗音 병가의 기형적 산물이라 할 것으로 우리의 관심은 왜 ‘머’ 또는 ‘므’로 적지 않고 ‘마’로 적고 있느냐의 문제로 집약된다. <ma>나 <me>는 다같이 성조를 지니지 않는 輕聲의 발음으로 앞의 것은 의문의 조사, 뒤의 것은 怎, 甚 또는 這, 那 등에 붙어 쓰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양자가 우리의 선대 한어학자들의 시대에도 구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당 표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같은 ‘마’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자료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실은 최세진의 번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심지어 좌측음의 ‘마’에는 2點을 붙여 그것이 上聲임을 나타내고 우측에서는 우리의 調值로 환산하여 無點 즉 평성이 됨을 지시해 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奎章全韻에서는 이 ‘麼’자를 上聲의 架韻 本字로 배열하면서 平聲의 歌韻에서는 增字部에서 추가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의 역학 자료를 가지고는 輕聲化 여부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당시의 현실음을 반영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zěme>, <shénme>의 <me>에서 보는 모음 ‘e’는 좀더 내려와서의 발달이고, 18세기 말엽까지는 ‘a’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12)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甚麼’ 쪽만이 ‘셔마’로 적히고 ‘怎麼’는 ‘m’을 유지한 ‘즈마’로 적히는가 하는 문제다. 현대의 중국 발음에서는

<zěme~zěme>

<shénme~shéme>

양쪽 다 자유로이 교체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역학자들이 그 차이를 의도적으로 분화시켜 표기하였던 것인지, 또는 당시의 중국어 현실이 그렇던

(12) 가령 ‘肯’字의 발음에는 <kěng>, <kěn> 두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重刊老乞大諺解는 한국인에게 좀더 생소할 <kěn>을 택하여 적고 있다.

것을 발판으로 상호 유추에 의하여 이 두 단어에 다같이 正形과 편의형이 발달된 것일 까도 생각케 하는 것이 우리의 자료가 던져 주는 물음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두 단어의 표기가 제기하는 최대의 과제는, 再三의 반복이 되지만, ‘怎’ 또는 ‘甚’의 발음 ‘m’이 언어 현실의 정직한 반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긍정된다면, 좁게는 중국어 음운사, 넓게는 음운변화의 원론에 적지 않은 발언을 보탬 수 있게 될지 모른다.

IV

이 장에서는 주로 字音 변천에서의 예외들과 음운변화에서의 걸음걸이의 느리고 빠름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대상은 주로 日母의 글자들의 변화 양상과 구개음화 진행의 遲速에 관한 자료 점점이 될 것이다.

日母의 변화례들 :

A. △ : △의 예들⁽¹³⁾

1. 日 ziq : zi

4-25, 7-4, 8-18, 8-22, 11-6, 15-13, 18-17(2번), 19-2,
19-18, 28-14, 30-1, 34-2, 35-19, 37-3, 43-31, 44-25,
46-6, 46-7, 46-8, 46-15, 48-2, 51-1, 54-10, 54-12,
54-18, 54-23, 54-27, 54-32.
57-36, 59-7, 59-8, 59-11, 67-15, 67-29, 69-40, 81-1,
82-4, 82-12, 86-37, 86-39, 87-7, 87-25, 88-3, 88-5(2번),
93-17, 93-32, 94-3, 98-32, 99-3, 100-28, 100-31, 110-1,
110-7, 110-21, 110-27, 111-1, 111-16.

2. 入 ziq : zyu

42-14, 93-17, 110-14.

3. 壬 zim : zin

110-22.

4. 若 zyaf : zyo

3-6, 3-25, 3-28, 8-9, 13-20, 13-32, 16-2, 18-9,
31-6, 31-46, 34-10, 34-13, 36-9, 40-13, 40-28, 42-3,

(13) 왼쪽은 正音, 오른쪽은 俗音.

48-23, 50-27, 52-29.
 64-13, 65-17, 69-7, 70-19, 71-9, 71-22, 71-23, 71-25,
 74-20, 74-30, 75-12, 75-13, 75-17, 75-31, 77-5, 77-30,
 87-30, 89-4, 89-6, 89-12, 89-23, 90-23, 92-7, 92-11,
 92-14, 92-16, 92-16, 92-21, 92-24, 93-6, 103-14, 103-21,
 104-27, 106-7.

5. 擾 zyeow : zyao

34-2, 59-8, 82-11.

6. 熱 zyeoq : zyeo

16-9, 47-26, 47-28, 48-3, 48-30.

7. 染 zyeom : zyeon

10-6, 10-8, 10-10, 10-12, 69-9, 96-3.

8. 如 zyu : zyu

7-2, 7-11, 16-22, 17-23, 19-13, 29-18, 33-17, 37-14,
 39-9, 40-30, 41-6, 42-7, 43-6, 46-23, 47-5, 49-17,
 51-7, 52-24, 54-22.
 56-7(2번), 56-11, 56-13, 58-6(2번), 60-12, 60-13, 60-23,
 62-32, 67-18, 67-20, 69-15, 70-9, 71-17, 83-1, 89-8,
 98-41, 99-5, 100-13, 100-17, 101-11, 102-14, 105-14, 110-2,
 111-14.

9. 潤 zyun : zyun

72-65.

10. 絨 zyung : zung

97-6, 97-8.

11. 軟 zyuyeon : zyuyeon

61-41, 77-15.

12. 辱 zuq : zu

93-6.

B. △ : ○의 예들

1. 人 zin : in

2-1, 2-3, 2-4, 4-1, 4-4, 4-14, 5-10, 5-11,
 5-12, 5-13, 6-5, 7-3, 7-12, 8-11, 8-31, 9-29,
 12-25, 13-30, 15-1, 15-16, 16-1, 16-26, 17-1, 17-4,
 17-11, 17-12, 17-27, 18-20, 18-29, 19-1, 19-5, 20-1,

20-10, 20-13, 20-18, 21-1, 21-7, 21-8, 21-10, 21-17,
 23-2, 23-3, 24-4, 24-14, 26-26, 27-12, 27-13, 27-18,
 28-14, 28-15, 29-9, 29-10, 30-3, 30-16, 31-1, 31-2,
 31-8, 31-13, 31-20, 31-25, 31-26, 31-35, 31-51, 32-16,
 33-1, 33-7, 33-10, 33-19, 33-23, 33-24, 34-1, 34-7,
 35-1, 36-5, 36-10(2번), 37-1, 37-2, 37-8, 37-9,
 37-17, 37-18, 37-20(2번), 38-1, 38-11, 39-2, 39-10,
 39-11, 39-12, 39-15, 39-17, 39-21, 39-22, 39-23, 39-25(2번),
 39-27, 39-28, 40-1, 40-3(2번), 40-5, 40-13, 41-1,
 41-35, 42-1, 42-4, 42-5, 42-7, 42-11, 42-19, 43-1,
 43-3, 43-7, 43-8, 43-13, 43-18, 45-12, 45-15, 45-16,
 47-3, 47-16, 47-18, 47-19, 48-15, 50-12, 50-14, 52-1,
 52-7, 52-8, 52-28, 53-10, 54-1, 54-16, 54-22.
 55-1, 56-6, 56-9, 58-3, 58-6, 58-8, 59-16, 59-20,
 59-21, 60-2(2번), 60-4, 60-6, 61-38, 61-39, 62-14,
 63-14, 64-17, 66-11, 67-3, 67-11, 67-12, 67-26, 67-30,
 67-31, 70-1, 70-15, 75-19, 77-4, 77-31, 82-1, 83-7,
 84-4, 84-7, 85-1, 86-42, 86-44, 87-4, 87-13(2번),
 87-15, 89-1, 89-3, 89-14, 89-15, 89-19, 89-23, 89-25,
 90-4, 90-13, 90-20, 90-23, 90-24, 91-2, 91-4, 91-20,
 91-23, 92-1, 92-15, 92-25, 93-1, 93-7, 93-30, 93-33,
 98-18, 98-23, 98-26, 98-36, 98-41, 99-9, 100-1, 100-3,
 101-14, 102-1, 102-2, 103-5, 104-31, 105-15, 106-4, 106-12,
 106-20, 106-22, 107-23, 111-3, 111-10.

2. 認 zin : in

38-14, 38-17, 65-15, 65-16, 67-19, 77-20, 106-4.

3. 惹 zyeo : yeo

28-14.

4. 然 zyeon : yan⁽¹⁴⁾

12-27, 14-28, 31-38, 38-18, 57-39, 62-15, 77-34, 87-24,
 91-15, 98-6.

5. 二 ziz : eur

8-10, 9-13, 10-7, 10-10, 10-13, 10-14, 10-15, 10-19,
 18-17(2번), 19-10, 19-16, 21-20, 27-7, 41-9, 47-21,
 47-34, 48-14, 48-16, 49-7.

(14) 自然 <zi ràn>

57-25, 62-5, 62-20, 62-24, 62-27, 67-14, 69-31, 71-21,
71-24, 75-7, 75-8, 85-3, 86-41, 86-43, 87-25, 101-14,
101-16, 102-7, 105-13, 110-27, 111-1.

6. 兒 ziz : eur

8-16, 12-13, 14-22, 16-20, 17-10, 21-4, 21-7, 24-6,
28-19, 33-4, 33-6, 52-26, 54-7.
57-43, 57-46, 58-18, 61-1, 66-10, 66-12, 71-4, 77-38,
77-39, 80-5, 81-19, 84-15, 86-6, 86-8, 89-1, 89-5,
94-20, 98-31, 101-13, 102-26, 104-12, 104-17, 107-21, 108-5,
108-6, 108-7, 108-8, 108-24, 108-25, 108-31, 108-42, 109-4.

7. 耳 ziz : eur

80-4.

C. △ : ㄹ의 예

1. 肉 zuq : ryu

7-17, 15-11, 15-12, 15-13, 15-18, 16-2, 16-4, 16-12,
17-8, 47-8, 47-20, 47-35, 85-7, 86-27, 91-17, 98-7,
98-15.

한글 자모 ‘△’으로 우리의 역학자들이 표음한 중국 한자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 그것이 권설화된 <r>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가까운 소리일 것은 말하기 어렵지 않다. 필자가 C類로 분류한 것으로는 오직 ‘肉’자 하나가 있을 뿐이지만, 그것이 ‘류’로 표음되었다는 것은 현대의 발음에 매우 가까워져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음절 유형이 ‘肉’과 같은 ‘罽’자(A.12)를 비롯하여 많은 글자들이 여전히 ‘△’로 표기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의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면서도, 당장 적절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B의 유형이다. ‘二’, ‘兒’, ‘耳’ 등이 <ér> 또는 <er>로 발음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들에서의 두음 z 또는 r의 소멸이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B 유형에 속하는 다른 글자들, 예컨대 ‘人, 認, 然…’ 등과 같은 어두 자음 소실 형태는 현대 중국어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줄 방언 자료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重刊老乞大諺解의 특별한 증언의 한 경우라 할 것이다.

<er>에 있어서의 음절말 <r>의 생성은 우리의 역학 자료가 그 생성 과정을 생생히 보여 주고 있다. 최세진에게 있어서는 다른 齒音 아래에서와 같이 모음 ‘이’ 또는 ‘으’ 아래 ‘△’을 붙인 형태를 正音 칸에 놓고 俗音 칸에는 그것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받침에 ‘△’이 있는 것 같이 발음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승: 승’와 같은 注音을 하였던 것이나, 老乞大諺解의 단계에서의 속음 표기는 ‘술’로 발전하고 있어서, 말음에서의 ‘ㄹ’의 형성 이후에 두음 ‘△’의 탈락이 성취되어 重刊老乞大諺解 단계의 ‘을’을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B유형에서 다른 ‘△’ 탈락자들과 일단은 궤를 같이 함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왜 다른 齒音字들에서와 달리 이 몇개의 경우와 같이 頭音 ‘△’의 조건하에서만 말음 ‘△’의 r음화가 행해졌는지는 좀더 연구될 과제라 하겠다.

이제 좀더 많은 글자들이 관여하는 구개음화에 대한 관찰로 옮겨갈 차례가 되었다. 여기서도 앞에서 다룬 ‘△’의 변화에서 보았던 것에 유사한 현상에 한편으로는 당혹하고 한편으로는 감탄하게 된다.

현대 중국어의 음소 결합에서 k, g, 또는 h[x]와 모음 i 내지 반모음 요드의 결합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합으로부터의 구개음화는 완결을 보았다 할 수 있겠는데, 重刊老乞大諺解의 자료는 구개음화된 형태와 구개음화되지 않은 형태를 아울러 보이면서 글자별로는 철저히 구별 표기되는, 즉 자의적으로 오락가락하는 혼동이 없이 분명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다.

관련되는 글자의 수효가 적고 구개음화의 폭이 좁은 h의 경우부터 보기로 하자. 俗音에 구개음화의 실현을 보이는 것은 ‘喜’, ‘許’, ‘虛’ 세 글자 뿐이고 나머지는 ‘ㅎ’를 유지한다.

1. 喜 hi : si
57-37, 89-26, 110-28
2. 許 hyu : syui
14-4, 67-23, 105-11.
3. 虛 hyu : syui
62-11, 71-11, 82-5.

이들은 <xī, uǔ, xū>에 해당하여 일견 모음의 제약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

나, 당장 ‘稀’ hi : hi(87-23)의 경우가 있어 그런 제한이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현재에 있어서는 ‘喜’와 함께 <xī>로 적히는 글자이다. (이 x는 종래의 웨이드 식 표기에 있어서의 hs에 해당한다.)

重刊老乞大諺解에서 s를 보이지 않고 h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의 예들도 현대의 표기에서는 모두 <x>를 두음으로 가지는 데 예외가 없다.

4. 稀 hi : hi
87-23.

5. 戲 hi : hi
12-24.

6. 行 hhing : hing⁽¹⁵⁾
4-10, 6-6, 8-18, 17-2, 19-19, 22-13, 25-20, 30-5,
30-11, 31-2, 32-3, 32-16, 35-13, 36-12, 37-2, 43-26,
45-4, 45-9, 45-10, 47-10, 48-11, 53-7, 53-13, 61-29,
89-18, 90-8, 90-9, 90-10, 91-22, 93-2, 93-5.

7. 杏 hhing : hing
hhang : hang을 보이는 다음 예들은 의미가 다르다,
67-9, 67-31, 74-15. 86-18.

8. 幸 hhing : hing
92-11.

9. 興 hing : hing
73-4.

10. 下 hhya : hya
3-23, 3-29, 8-24, 8-25, 8-32, 13-3, 15-9, 16-12,
20-5, 20-13, 21-24, 26-23, 30-5, 30-11, 31-21, 35-4,
37-10, 39-11, 39-22, 45-3, 47-27, 48-11, 48-26, 50-24,
51-6, 51-9, 52-6, 52-11.
57-6, 58-15, 58-31, 59-1, 60-20, 69-20, 69-38, 69-40,
71-34, 72-5, 85-20, 91-4, 91-13, 91-23, 98-13, 110-30.

11. 夏 hhya : hya
36-2, 46-1, 46-4, 46-17, 46-22, 47-1, 88-3, 94-6,
95-4, 97-4.

(15) hhang : hang을 보이는 다음 예들은 字意를 달리한다.
67-9, 67-31, 74-15.

12. 匣 hhyaq : hya
108-21.
13. 香 hyang : hyang
72-35, 86-20, 87-14.
14. 向 hyang : hyang
37-19, 62-17, 62-18, 92-13.
15. 項 hyang : hyang
74-1.
16. 響 hyang : hyang
77-5, 90-10.
17. 閑 hhyan : hyeon
12-26, 13-1, 64-17, 72-6, 81-3, 93-15, 98-26, 98-28,
104-32.
18. 械 hhyai : hyeoi
22-4,
19. 限 hhyan : hyeon
100-31.
20. 縣 hhyeon : hyeon
9-22.
21. 現 hhyeon : hyeon
100-27, 102-14.
22. 弦 hhyeon : hyeon
77-7, 78-1, 78-9.
23. 絃 hhyeon : hyeon
98-20.
24. 嫌 hhyeom : hyeon
40-28, 42-16, 50-8, 77-22.
25. 學 hhyaf : hyo⁽¹⁶⁾
2-3, 2-5, 2-6, 2-7, 2-8, 2-12, 2-14, 2-19,
3-7, 3-12, 3-13, 3-16, 4-2, 4-18, 4-19, 4-20,
4-21, 4-22, 4-25, 4-26. 109-14, 109-17.

(16) 현대 중국어에 있어서는 이 글자에 <xué : xiáo>의 구별이 있고 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나,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효'만 보이고 있다.

26. 效 hhyaw : hyo
87-13.
27. 況 hoang : hyoyang
90-15.
28. 肖 hyung : hyung
86-33, 98-8.
29. 兄 hyuing : hyung
12-9, 12-12, 12-17, 12-20, 12-23, 58-14, 81-13, 81-32,
81-33, 81-34, 81-35, 92-5, 111-11, 111-17.
30. 靴 hyuyeo : hyuyeo
97-1, 97-2, 97-4, 97-5, 97-8, 97-9.
31. 眩 hhyuylon : hyuylon
87-1, 87-10.
32. 休 hiw : hiu
23-3, 33-22.

이 밖에도 hyaq : hya(61-46) 및 hhyam : hyeon(86-35)을 보이는 것이 있으나 둘 다 벽자에 속하기에 나열에서는 제외시켰다. 다음에 다룰 g와 k의 경우에도 인쇄에 돌리기 거북한 몇개의 글자는 열거에서 제외하였다. 워낙 예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략은 전체를 보는 데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A. g : j로 구개음화를 보이는 경우 : (바른쪽 j를 중심으로 하고 왼쪽은 gg[실제로는 1례]을 포함)

1. 給 giq : ji
3-21, 17-25, 17-28, 17-32, 31-40, 32-7, 32-8, 32-13,
33-8, 33-20, 35-6, 41-11, 41-13, 41-24, 41-28, 41-37,
42-6, 43-24, 47-31, 50-4, 50-5, 54-17, 64-3, 65-3,
65-20, 67-2, 69-20, 69-33, 71-13, 71-21, 71-30, 74-25,
75-33, 81-50, 100-29, 102-20, 102-23, 102-26, 103-17, 103-24,
105-10, 105-14.
2. 急 giq : ji
61-30, 104-17.

3. 既 gyeoi : ji

6-4, 6-22, 8-12, 12-12, 12-23, 17-26, 22-11, 23-13,
 24-11, 25-15, 35-16, 40-22, 41-35, 42-10, 52-33, 54-4,
 55-11, 59-10, 64-23, 65-6, 67-13, 69-33, 72-4, 74-24,
 74-31, 74-41, 77-13, 100-21, 100-34.

4. 幾 gyeoi : ji

6-17, 6-19, 7-4, 9-1, 9-15, 11-16, 13-12, 14-4,
 18-25, 29-6, 29-21, 39-14, 39-22, 40-4, 41-8, 48-9,
 48-12, 52-3, 52-4, 52-7(2번), 53-11, 54-18.
 55-3, 56-21, 57-3, 58-2, 58-10, 58-17, 58-19, 58-24,
 72-2, 77-9, 79-1, 79-17, 81-50, 84-3, 84-16, 93-32,
 98-12, 98-22, 99-10, 100-28, 104-20, 109-8, 110-19.

5. 稽 gyeoi : ji

37-16, 39-9.

6. 計 gyeoi : ji

9-6, 10-28, 17-3, 17-31, 62-23, 62-24, 62-27.

7. 計 gyeoi : ji

17-29, 46-8, 46-24, 65-16, 67-8, 104-9, 106-5,
 106-15, 109-11.

8. 雞 gyeoi : ji

18-19, 29-2, 85-8, 85-13.

9. 饑 gyeoi : ji

33-16, 33-18.

10. 京 ging : jing

1-2, 1-4, 1-5, 1-6, 1-7, 1-17, 6-3, 6-4,
 6-15, 7-2, 7-11, 7-19, 8-23, 9-19, 9-24, 10-3,
 11-1, 11-5, 11-9, 11-13, 13-15, 17-30, 19-9, 40-18,
 46-3, 46-20.
 57-8, 67-9, 72-61, 72-64, 74-20, 75-23.

11. 荊 ging : jing

21-3.

12. 家 gya : jya⁽¹⁷⁾

2-13, 6-13, 8-11, 13-6, 13-30, 14-5, 15-16, 16-1,

(17) 두 예(80-13, 91-19)의 경우에는 '사람인 변'이 붙은 '家'의 속자.

16-26, 17-1, 17-22, 18-20, 19-1, 23-3, 24-14, 29-9,
 29-10, 30-3, 31-1, 31-8, 31-28, 32-12, 33-10, 33-19,
 33-24, 34-1, 34-6, 34-12, 34-14, 35-1, 36-5, 37-1,
 37-8, 38-1, 38-11(2번), 39-10, 39-21, 39-25, 39-28,
 40-1, 40-25, 41-1, 42-7, 42-11, 42-15, 43-1, 43-30,
 45-12, 45-15, 47-17, 47-32, 52-1, 53-10, 55-20, 56-14,
 57-4, 57-5, 57-12, 57-42, 59-20, 62-16, 62-31, 64-1,
 65-12, 65-18, 66-4, 66-15, 69-16, 81-44, 81-45, 81-46,
 81-47, 81-48, 82-3, 89-1, 90-2, 90-18, 93-9, 93-18,
 93-33, 98-18, 98-34, 100-1, 100-2, 100-12, 100-30, 101-5,
 102-1, 102-15, 106-16.

13. 嘉 gya : jya

73-4.

14. 江 gyang : jyang

40-7.

15. 薑 gyang : jyang

85-25, 87-20.

16. 覺 gyaf : jyao

8-8, 18-15, 18-21, 36-6.

17. 教 gyaw : jyao

3-7, 3-16, 3-19, 4-20, 4-21, 5-5, 5-6, 5-8,
 14-27, 16-4, 16-16, 23-23, 25-2, 26-20, 30-15, 31-20,
 35-5, 35-6, 36-11, 37-12, 37-14, 37-15, 39-5, 39-22,
 39-27, 42-20, 43-21, 43-23, 43-29, 44-19, 45-7, 49-15,
 50-12, 50-14.
 62-12, 65-11, 66-1, 77-32, 83-7, 83-27, 86-46, 89-3,
 89-6, 91-21, 93-15, 98-20, 103-19.

18. 較 gyaw : jyao

87-29.

19. 攪 gyaw : jyao

16-14, 24-15(2번), 33-11, 33-12, 34-2, 82-11.

20. 叫 gyeow : jyao

18-19, 21-18, 29-2, 84-7, 98-22.

21. 挈 gyeoq : 90-14

22. 舊 ggiw : jiu

21-1, 38-13, 68-2.

23. 蹶 gyuyeoq : jyuyeo⁽¹⁸⁾

B. K : C로 구개음화를 보이는 경우 : (왼쪽은 gg일 때가 약간 있음.)

1. 喫 kiq : ci

2-13, 3-29, 7-11, 9-2, 9-9, 13-21, 14-17, 15-6,
 16-29, 18-5, 18-6, 18-8, 18-10, 18-14, 24-8, 24-18,
 24-20, 26-13, 28-23, 30-4, 30-14, 31-3, 31-7, 31-13,
 31-15, 31-21, 31-22, 31-25, 31-27, 31-28, 31-30, 31-32,
 31-35, 31-37, 31-40, 32-4, 32-6, 32-10(2번), 32-13,
 32-15, 32-18, 32-19, 33-2, 33-3, 33-8, 33-9, 33-20,
 33-24, 35-5, 35-6, 35-7, 35-12, 41-12, 41-18, 41-20,
 41-21, 41-25, 42-6, 42-17, 42-21, 43-3, 43-8, 43-12,
 43-15, 43-25, 44-4, 44-5, 46-2, 46-13, 47-2, 47-4,
 47-5, 47-8, 47-18, 47-24, 47-27, 47-30, 48-4, 48-25,
 48-30, 48-32, 49-1, 49-14, 49-20, 49-21, 50-21, 52-28,
 52-29.
 81-50, 82-2, 85-15, 85-16, 85-17, 86-38, 86-40, 86-41,
 86-43, 86-44, 86-46, 87-6, 87-7, 87-13, 87-17, 87-18,
 87-21, 87-23, 87-24, 87-28, 91-9, 93-34, 98-1, 98-2,
 98-5, 98-9, 98-15, 103-19, 103-20.

2. 吃 kig : ci

98-39.

3. 騎 ggi : ci

21-5, 67-13, 88-13, 93-11, 93-34, 98-10.

4. 棋 ggi : ci

108-38, 108-39.

5. 起 kyeoi : ci

2-10, 3-7, 7-18, 18-19, 19-2, 19-13, 19-14, 20-8,
 20-9, 24-1, 26-21, 29-1, 29-4, 43-29, 44-9, 45-7,
 46-9, 49-23, 57-9, 57-36, 74-40, 88-18, 91-10, 98-3,
 110-19, 111-1.

(18) 原文에는 두음이 ‘ㄷ’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ㅈ’의 誤記일 것이다. 현재의 발음이 <jué, juě>임을 참조.

6. 器 kyeoi : ci
22-4, 80-30, 98-36.
7. 欺 kyeoi : ci
77-18, 106-14.
8. 豈 kyeoi : ci
111-17.
9. 氣 kyeoi : ci
14-27, 77-9, 83-2, 87-14.
10. 去 kyu : cyui⁽¹⁹⁾
- 1-4, 4-10, 4-20, 4-21, 6-2, 6-3, 6-4, 6-8,
6-10, 6-15, 6-17, 6-19, 6-22, 6-23, 8-1, 8-9,
8-15, 8-26, 9-21, 9-24, 11-5, 13-15, 13-33, 14-9,
15-9, 15-10, 15-17, 16-4, 18-14, 19-6, 19-8, 19-18,
19-24, 21-25, 22-15, 23-3, 23-6, 24-8, 24-10, 24-12,
24-13, 24-17, 24-19, 24-21, 25-1, 25-4, 25-21, 26-2,
26-7, 26-8, 26-10, 26-23, 28-1, 28-5, 28-6, 28-9,
28-11, 28-15, 28-24, 29-9, 29-11, 29-12, 30-7, 30-10,
30-13, 30-16, 31-13, 32-7, 32-13, 33-7, 34-13, 34-14,
35-2, 35-24, 36-8, 36-9, 36-13, 37-7, 39-5, 39-23,
40-18, 42-12, 43-14, 43-19, 43-23, 43-27, 43-29, 44-6,
44-8, 44-12, 44-16, 44-17, 45-3, 45-13, 45-15, 45-17,
45-21, 46-20, 47-11, 47-28, 48-12, 49-22, 51-5, 51-9,
51-11, 51-12, 51-13, 52-13, 52-14, 52-15, 52-16, 52-21,
52-26, 52-34, 53-3, 53-10, 53-13, 53-15, 54-5, 54-15,
54-28, 54-30, 54-32, 54-34.
55-7, 55-11, 55-19, 55-23, 56-19, 57-6, 59-1, 59-11,
59-14, 59-17, 60-9, 60-10, 64-14, 64-16, 68-17, 68-21,
69-6, 69-7, 69-27, 69-39, 70-7, 70-11, 70-12, 70-17,
71-18, 71-23, 71-36, 72-4, 72-7, 72-8, 74-8, 74-30,
77-1, 77-2, 78-3, 83-7, 88-17, 89-18, 90-10, 91-3(2번)
91-5, 91-9, 91-22, 93-5, 93-18, 98-18, 98-32, 99-2,
99-4, 99-5, 99-8, 99-12, 101-12, 102-15, 102-16, 103-22,
104-8, 105-23, 106-21, 107-2, 107-10, 107-19, 108-2, 110-1,
110-2, 110-19, 110-27, 110-28, 111-6, 111-7.

(19) 이와 같은 음절형의 벽자가 한번 쓰인 것이 있으나 예시에서는 제외하였다.

11. 強 ggyang : cyang
33-7.

12. 橋 ggyeow : cyao
19-12, 29-14, 25-15, 29-19(2번).

13. 求 ggiw : ciu
14-12, 98-42.

C. g : g로 구개음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 : (약간의 예들에서 왼쪽은 gg)

1. 吉 giq : gi
110-29.

2. 及 ggiq : gi
41-35, 51-16, 70-5.

3. 極 ggiq : gi
94-7.

4. 紀 gyeoi : gi
5-3, 49-3, 49-8, 49-11.

6. 己 gyeoi : gi
15-10, 31-51, 67-5, 74-7, 91-13, 92-9, 93-3, 110-22.

7. 季 gyeoi : gi
72-50, 94-2, 94-22, 95-2.

8. 繫 gyeoi : gi
95-1, 95-3, 95-7, 95-9, 95-11.

9. 麂 gyeoi : gi
97-2, 97-5.

10. 斤 gin : gin
7-16, 10-14, 10-21, 15-8, 15-14, 15-15, 15-18,
17-6, 17-7, 17-8.
56-12, 56-14, 100-13, 100-15, 100-16, 101-2, 101-3,
101-4, 101-6, 101-8, 101-14, 101-15, 101-16, 108-3,
108-9, 108-10, 108-11, 108-12, 108-16.

11. 緊 gin : gin
31-44, 40-9.

12. 筋 gin : gin

13. 謹 gin : gin
39-9, 91-22, 93-5.
14. 近 ggin : gin
8-26, 20-18, 37-16, 38-7, 38-11, 39-20, 39-27, 52-26,
58-6, 92-4.
15. 金 gim : gin
12-6, 57-33, 57-42, 74-5, 74-11, 74-17, 74-21, 74-26,
94-95, 95-3, 95-7, 95-9, 96-4, 97-5, 98-36.
16. 今 gim : gin
1-3, 1-13, 4-7, 6-2, 8-1, 15-13, 19-13, 20-22,
22-10, 26-28, 29-18, 35-19, 37-3, 39-9, 41-6, 41-14,
41-32, 42-2, 42-9, 46-7, 46-9, 46-23, 49-6, 49-17,
50-21.
55-22, 56-7, 56-11, 56-13, 57-36, 58-4, 59-7, 60-24,
67-4, 80-1, 82-4, 83-1, 86-39, 88-5, 98-41, 99-5,
100-13, 101-11, 102-14, 110-9, 110-15, 111-4.
17. 襟 gim : gin
24-12.
18. 禁 gim : gin
22-10.
19. 矜 ggim : gin
81-36.
20. 經 ging : ging
72-68, 104-11, 104-13.
21. 競 ging : ging
105-17.
22. 竟 ging : ging
93-24.
23. 更 geuing : ging⁽²⁰⁾
17-2, 18-6, 18-18, 19-2.

(20) 이것은 명사의 경우이고, 부사로 쓰였을 때에는 29-20 등에서도 같이 geuing : geung.

24. 價 gya : gya

7-4, 7-9, 7-10, 7-20, 10-2, 10-3, 10-4, 10-15,
 10-29, 13-26, 54-16, 54-23, 54-24, 54-26.
 56-7, 56-8, 56-10, 56-23, 56-24, 58-4, 58-5(2번),
 58-6, 62-6, 62-7, 62-11, 62-28, 62-30, 63-1, 63-10,
 64-1, 64-2, 64-15, 64-18, 64-25, 67-15, 69-24, 70-13,
 71-6, 71-9, 71-15, 71-19, 74-10, 74-14, 74-16, 74-24,
 74-28, 74-31, 75-28, 75-30, 75-31, 75-32, 77-34, 100-3,
 100-13, 100-21, 100-32, 102-4, 102-9, 102-10, 102-13, 102-14,
 102-18, 103-2, 103-3, 103-7, 103-11, 104-33.

25. 假 gya : gya

65-15, 74-18, 98-22, 106-3, 107-25.

26. 甲 gyaq : gya

94-21, 110-20

27. 間 gyan : gyan

70-14, 94-4, 94-10, 97-2, 97-4, 98-30.

28. 鋼 gyan : gyan

83-16

29. 交 gyaw : gyao

62-10, 62-32, 63-9, 64-11, 67-16, 67-22, 103-9, 103-13,
 103-21, 104-35, 105-16, 106-19, 110-15.

30. 膠 gyaw : gyao

80-32.

31. 澆 gyeow : gyao

72-69.

32. 隔 geuiq : gyeo

38-11.

33. 見 gyeon : gyeon

4-4, 4-5, 19-30, 20-6, 31-39, 36-10, 39-1, 39-2,
 41-10, 55-22, 59-2, 60-19, 82-8, 86-34, 111-9, 111-15.

34. 堅 gyeon : gyeon

49-16.

35. 建 gyeon : gyeon
110-24.
36. 件 ggyeon : gyeon
23-4, 93-37.
37. 揀 gyan : gyeon
18-10, 72-60(2번), 74-33, 78-5, 107-24, 110-1.
38. 檢 gyeom : gyeon
20-16.
39. 減 gyam : gyeon
64-7, 71-17, 71-18, 92-23, 93-37, 109-7.
40. 監 gyam : gyeon
22-10, 109-15.
41. 解 gyai : gyeoi
48-9.
42. 界 gyai : gyeoi
72-46.
43. 脚 gyaf : gyo
10-29, 80-24, 83-5, 90-12.
44. 角 gyaf : gyo
55-7, 55-11, 55-16, 67-10, 77-32, 79-4, 108-9, 108-24,
108-25.
45. 規 gui : gui
27-18.
46. 矩 gyu : gyui
27-18.
47. 駒 gyu : gyui
61-24, 61-26.
48. 據 gyu : gyui
62-20, 64-8, 71-13.
49. 旬 gyu : gyui
2-15, 2-16, 4-14, 41-2, 43-2, 52-20, 62-10, 71-20.

50. 絹 gyuyeon : gyuyeon

9-23, 9-31, 10-1, 10-5, 10-6, 10-9, 10-16, 11-4,
 11-11, 73-5, 73-6, 73-7, 73-8, 73-9, 73-10, 73-11,
 73-12, 73-13(4번), 74-1, 94-19.

51. 眷 gyuyeon : gyuyeon

14-10, 82-5.

52. 九 giw : giu

63-7, 102-23, 105-12.

53. 救 giw : giu

92-14.

54. 久 giw : giu

29-3, 65-67.

55. 舅 ggiw : giu

58-13, 81-23(2번), 88-33, 81-40, 81-41, 81-47(2번).

D. K : K로 구개음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 : (왼쪽은 gg일 때가 있음.)

1. 其 ggi : ki

67-32, 69-8, 70-14, 73-14.

2. 棄 kyeoi : ki

34-11.

3. 契 kyeoi : ki

65-8, 66-1, 66-3, 66-4, 67-1, 67-15, 67-28, 67-30,
 67-32, 68-14.

4. 勤 ggin : kin

18-16, 24-2.

5. 恰 kyaw : kya

21-15, 107-12.

6. 腔 kyang : kyang

98-27.

7. 却 kyaf : keo

69-32, 71-9, 104-15, 104-19.

8. 茄 ggyeo : kyeo

31-31, 85-23.

9. 牽 kyeon : kyeon
26-2, 26-3, 26-8, 28-1, 28-2.
10. 欠 kyeom : kyeon
67-17.
11. 羣 ggyun : kyun
61-42.
12. 勸 kyuyeon : kyuyeon⁽²¹⁾
93-30.

어떤 경우에 구개음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 그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간명한 도식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매우 복잡해 보이는 구조의 일단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도 보인다. 예컨대 末音이 n인 경우에는 ($n < n$, $n < m$ 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구개음화 실현의 예를 볼 수 없다는 것 같은 것이 그런 소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ging이 jing과 ging으로 갈리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종시 ‘경’으로만 표기되는 ‘京’자는 平聲의 庚韻字인데 반하여 ‘경’으로 표기되는 ‘經’자는 靑母에 속하여 韻母의 차이가 작용하는 것 같지만, ‘經’字는 平聲字이면서도 去聲의 徑母에 통용된다는 사실이 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家’와 ‘價’의 대립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家’가 平聲의 麻音字인데 반하여 ‘價’나 ‘假’는 같은 음절 유형의 去聲字라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平仄의 대립이 gya와 jya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 보인다. 좀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살핀다면 1聲과 1聲 아닌 것의 차이라 해야 할 것 같다. gi형의 구개음화 거부형은 ‘紀, 己, 季, 繫’ 등과 같이 3聲 또는 4聲이고, ‘키’로 적히는 ‘其’나 ‘棄’는 2聲과 4聲이다(이 유형의 것이 모두 구개음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이 우리의 자료의 복잡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肴母의 경우에는 사정이 또 정반대여서 우리를 당황케 한다. 平聲의 ‘交’가 gyao를 보이는 반면에 上聲(巧母)의 攪나 去聲의 較(敎母)는 거꾸로 jyao를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敎는 平聲에 通用되며 후자의 범주에 든다.

(21) ggyuyeo : kyuyeo의 예(61-51)가 있으나 벽자이기에 예시에서 제외.

筆者의 현재의 능력과 준비 상태로는 더 이상의 정밀한 논의를 기도하는 것은 무리를 수반하게 되겠기에 여기서 그치기로 하지만, 그 시기에 구개음화가 지금과 같은 철저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할 것이며* 어떤 조건에 따라 진행의 완속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 없었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음운론적 조건 아래 있던 글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구개음화된 형태로 또 어떤 것은 아직 구개음화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 사정하여 上下卷 전체에 일관되게 注音하였던 것이 重刊老乞大諺解 편찬자들의 혼들림 없는 태도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V

흔히 英・正時代라는 말로 朝鮮朝 후기에 있어서의 文運의 재흥을 이야기 하지만, 조부처럼 長壽하지 못하고 불과 4반세기의 재원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正祖의 文治를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심정이다. 특히 韻字에 있어서는 奎章全韻을 간행함으로써 朝鮮朝 韻字의 결정판을 내놓았다 할 수 있겠거니와, 이 글에서는 그의 漢字音 정리의 일환으로서 老乞大를 重刊하며 거기에서의 번음이 가지는 의의를 추구하고 보았다.

첫째는 正音과 俗音의 병기 체계의 완비를 들 수 있다. 원래 崔世珍이 老乞大와 朴通事를 번역함에 즈음하여 그 凡例에서 正音과 俗音,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今俗音까지 그 아래에 달 것을 장담하였으면서 실제의 번역에 있어서는 兩音 체계를 고수함으로써 正音과 俗音의 병기가 아닌 俗音과 今俗音의 병기를 보이는 등 체재의 일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²²⁾

현종조에 나온 老乞大諺解도 이 점에서는 최세진의 번역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고 하였던 것인데(숙종조의 朴通事讀解로 동일하다.), 正祖의 命刊에 의한 重刊本에 와서 正音과 俗音의 병기라는 본래의 체재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오랜 未備點을 비로소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老乞大의 重刊本에 필적할 朴通事의 重刊諺解本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성급하게 내렸던 부족한 추측을 정정하였음을 특히 적어 두고 싶

(22) 이 문제에 대하여는 1973년의 글저 서론의 각주 부분에서 비교적 자세히 비판한 일이 있다.

다. 正祖의 학문과 사상은 正統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므로, 祖宗 이래의 일을 함부로 부분 폐기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돌리며, 正祖의 원 계획에는 당연히 朴通事의 重刊諺解가 포함되었을 것이나, 그의 수명이 그 사명의 추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重刊老乞大諺解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당시의 중국어 현실음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가 이 책의 가치를 가장 드높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시적인 관찰은 전적으로 俗音 표기의 몇 문제에 국한하게 되었다.

18세기 말의 자료와 현대 중국어의 발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필자의 중국어 음운사의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기했다고 하는 따위의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근세의 중국어 음운사의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 크게 공헌할 생생한 자료라는 것만은 장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怎麼’와 ‘甚麼’의 표기 태도에 대한 것이 첫 과제였다. 현대의 중국 발음에서는 <zěnmě : zěne>, <shěnmě : shéme>가 다 같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즈마’로 후자는 ‘셔마’로만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혹 인위적인 식별이 아닐까 의심 안되는 바도 아니지만, 우선 흥미 있는 현상의 하나라고 차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같은 <e> 모음을 왜 달리 표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역시 해답은 불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모음 문제는 너무 복잡하여 지금으로서는 손이 돌아가지 않는다. 셋째는 모음과 성조에 접치는 문제인데, 말미의 모음이 두 경우 모두 이른바 경성화되어 <e>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의 역학 전통은 이 重刊本에 이르기까지 ‘麼’의 표기는 ‘마’로 버티고 있다. 현대의 발음과의 이 괴리의 의의 역시 필자에게는 아직 불가해한 일의 하나다. 끝에 적게 되었지만, 이 두 단어를 다룬 제일의 동기는 ‘怎’자를 ‘즈’으로 번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다음 음절이 <m>으로 시작되는 ‘怎麼’의 경우만이 아니라 ‘麼’를 동반하지 않고 다른 글자에 연결될 때에도 계속하여 ‘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경탄할만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보고 사항이 된다고 확신한다. 둘째는 日母의 변화에 관한 고찰이었다. ‘nɿ’ 등으로 중국어학자들이 표시하는 이 聲母를 우리는 ‘z’로

표기하였던 것인데(중국어의 z는 ‘ㄗ’으로 표기), 현대에는 ‘r’로 표기하는 권설음으로 변한 것이 大勢이고 다만 ‘二, 兒, 耳’ 등에서와 같이 음절말에 ‘r’을 발전시킨 자들의 경우에만은 어두의 자음이 탈락을 보인 것이 저들의 음운 현실이다.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를 거쳐 중간노걸대언해에 이르는 우리의 역학자료는 日母의 이러한 기본 변화의 상황은 물론 잘 반영하고 더 미세한 과정들까지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支寘韻에 속하는 저들 글자 이외의 경우에도 가령 ‘人’字 같은 예들에서 머리 자음의 탈락을 증언하는 주음을 보인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면서 매우 소중한 기록으로 중국어 음운사 연구에 보고할 특별한 사실이라 하겠다.

다음은 지금은 완성되고 당시에는 진행중에 있었던 음운변화의 실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하여 <h, g, k> 등의 구개음화의 상황을 살펴 보는 일로 과업을 삼았는데, 우선 자료 면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구개음화 여부를 文字別로 사정하여 엄격하게 식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명쾌히 규정지을 만한 명확한 큰 조건 같은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주 내용이 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령 <n> 발음을 가진 글자들에 구개음화된 예가 없다든지 하는 작은 특기 사항이 있는가 하면, 平聲, 그 가운데서도 陰平(즉 1성)의 경우 구개음화를 잘 실현하고 그 밖의 성조를 가질 때 구개음화가 잘 되지 않는듯 한 무리(韻母)들이 있는가 하면, 사정이 정반대인 무리도 있고, 支寘韻의 경우와 같이 몇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구개음화가 잘 되는 부류도 있어 통틀어 어떤 원칙을 제시하기는 아직 어렵다. 미시적인 모음론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크게 보아 이 한 마디만은 확인할 수가 있다. 19세기 이래의 명제로 음운변화에 예외가 없다는 말을 익히 들어오지만, 그것은 1세기나 2세기의 큰 간격을 두고 앞뒤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국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고, 실제로 진행중인 음운변화 자체에 있어서는 규칙화하기 어려운, 단어에 따른 차이가 실재한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인식인데, 바로 눈앞에 그런 생생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重刊老乞大諺解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다.

끝을 맺으면서, 이것은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영킨 실타래의 첫 코를 잡아다린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출발점에 있어서는 우리 先人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작업으로 시작하였지만, 장차는 중국어 음운사의 중요 자료로서 새 시대의 각광을 우리 重刊老乞大諺解가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參 考 文 獻

- 姜信沆 (1973), 四聲通解研究, 新雅社.
- 金完鎭 (1973),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韓國文化研究所.
- _____ (1976), 老乞大의 諺解에 對한 比較研究, 韓國研究院.
- _____ (1978), 朱點本重刊老乞大諺解에 對하여, <奎章閣> 2, 79-88, 서울大學校 圖書館.
- 南廣祐 (1972), 翻譯老乞大解題, 影印本上卷, 中央大 出版局.
- _____ (1975), 翻譯老乞大解題, 影印本 下卷, 仁荷大學校 出版部.
- 董同龢 (1968), 漢語音韻學, 廣文書局, 臺北.
- 末松保和 (1944), 老乞大諺解解題, 老乞大諺解 影印本,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 小倉進平 (1940), 增訂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東京.
- 周法高 外(編) (1973),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